



제 3 과. 성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신다.

성경: 사 55:1-3

찬양: 찬 309 장/목 마른 내 영혼, 복음송/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기도: 하나님이 오늘 모임 가운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성경 본문 연구 & 나눔]

1. 최근 내가 자주 요리하거나 주문해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You are what have eaten)라는 말처럼, 건강이나 일상에 주었던 변화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자!
영적 & 육체적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싶은 식습관(먹는 습관)이 있지만 아직도 끊지(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2. 오늘 본문은 메시아 앞에 초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약속한 말씀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I. 배고픔의 습관 바로잡기

1.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실천이 필요했다. 습득된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대항 형성적 counter-formative 실천, 나의 굶주림을 유지하는 다른 주기와 반복적 행위가 필요했다. 영적 굶주림도 마찬가지다.
 - 1) 중요한 의미에서 나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맹세했다.
참으로 (재)형성적인 실천은 “공동체적” 이기 때문이다.
 - 2) 내가 원하는 바를 재형성하기 위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실천에 열심을 냈다.
새로운 훈련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식습관과 운동 프로그램에 임했다.
운동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동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다.
2.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습관의 재형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수많은 무질서한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영성 형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에 몰입할 기회를 얻는다.

3.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재정향하고 우리의 식욕을 다시 훈련하라고 촉구하시는 공간이다. 사실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곳,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 주시는 집,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집이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욕망하시는 바에 대한 새로운 굶주림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분의 창조세계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잔치다.

4. 제자도는 일종의 이민과 같아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골 1:13)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상의 여권을 받는다. 그분의 몸 안에서 그 왕국의 ‘주민’ 처럼 사는 법을 배운다.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 가는 것은 다른 영토로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획득해야 한다. 경쟁하는 왕국의 습관을 버려야 한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 장차 올 왕국의 백성으로 변해 가는 과정이다. (빌 3:20)

II. 일상에 거하시는 성령님.

1. (예화) 홍수 중, 지붕위에서 하나님께 구조받기를 원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의 카누 구조, 모터보트 구조대, & 헬리콥터의 구조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슨 소리냐? 내가 카누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랐느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특별한 것에서 성령을 찾는다. 마치 그분의 은총이 언제나 특별한 ‘사건’이기라도 한 것처럼, 성령이 일상적 은총의 수단 곧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신실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고 평범한 식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2.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평범한 은총의 수단에 싫증을 내기 시작한다. 과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만들어 온 교리와 권징은 무시되거나 더 새로운 유행이나 방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더 새롭고 개선된 것이 잠시 동안 우리를 현혹할지도 모르지만 그 역시 금세 ‘구식’이 되고 만다.

3. 당신이 무질서한 세속 예전으로 사랑이 잘못 형성된 습관의 동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은 당신의 사랑을 재형성하고 다시 훈련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실천이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대항 형성적 실천을 통해, 굶주림을 만들어내는 의례와 사랑을 빚어내는 예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주시는 힘 덕분에 가능한 실천을 우리에게 주신다.

4.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은 평생에 걸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계속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성찬대 주위에 모인 회중의 예배의 삶에서 퍼져 나오며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는다.

교회 없이는 성화도 없다. 건물에 어떤 미신적인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실천으로 이뤄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Ⅲ. 누구의 예배? 누구의 행위?

1. 예배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솔직히 말해 수정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교회의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는 독특한 공간이다. 마르바 던 Marva Dawn 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시다.

2.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일차적 목적은 “내가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이 아니다. 오히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며, 예배는 그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청중인 동시에 행위 주체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 그분을 위해 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예배 가운데 활동하신다.

3.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자리다. 칼뱅은 성례전이 엄밀히 말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레나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은총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IV. 결론 – 형성(formation)하는 형식(form)이 중요하다.

1. 예배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우선이라는 성경적 인식을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예배 형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성령이 몸을 입은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배 형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예배의 핵심이 형성(formation)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왜 형식(form)이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2. 예배가 단순히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성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형성하는 예배 형식에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배를 단순한 표현과 분리할 때, 이는 반복(습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 예배를 상향적(↑) 표현 행위로 생각할 때는 반복은 진실하지 않으며 진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예배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근원적 습관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향적(↓) 만남으로의 초대로 이해할 때 반복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다. 형성적 패러다임에서 반복은 거짓이 아니다. 당신은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복 없는 형성은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덕의 형성을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며, 반복없는 실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V. 함께 기도하기

1.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살게 하소서!
3. 속회안의 속도원들의 기도제목을 따라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VI. 숙제

제 4 과, “당신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가?”

내용을 원 교재(책)를 통하여 미리 읽거나 설교를 통하여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